

Chapter 6. Content Now II

걷는 전시, 프레임 너머의 이야기

모든 생명체가 사진으로 통하는 곳, 경기사진센터

글 | 김성주 작가 mistyfriday@me.com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니
까.” 매일같이 듣는 어머니의 단골 멘트다. 쓰
임새도 참으로 다양하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라는 격려가 되는가 하면, 삶은
되돌릴 수 없으니 적당히 참으며 착실하게 살
라는 충고도 된다. 이날은 TV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으로 쓰였다. 이름도 생소한 아드
리아 해 연안국 몬테네그로의 대자연에 그녀는
완전히 매료됐고 급기야 아들을 질책하기에 이
르렀다. 여행작가라는 놈이 여태 저런 곳도 안
가보고 뭐 했냐는 말이었다. 나는 맞장구를 치
며 몇 달 전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과 만났던 이
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때 탈락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저기 있었을 것이란 말에 어머니는 눈
이 동그아졌다. “저런 데는 위험해서 안돼.”

프랑스의 영화 평론가 앙드레 바쟁(André Bazin)은 <사진 이미지의 존재론>(1945)에서
“사진은 영원성을 창조하지 않는다. 시간을 방
부 처리하여 고유한 부패로부터 구해낼 뿐이
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진 속 존재의 소멸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프레임 안에 기록된 장면
은 영원 가까이 보존된다. 그것을 보는 이들은
언제든 지나간 시간을 떠올릴 수 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지만 사진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수
더분한 청년으로 남아 있는 국민 배우의 초상
이 그 예다. 가히 마법 같은 일 아닌가.



사(寫)에서 진(眞)으로 경기도의 공공 사진 전문기관

경기사진센터

2026년 3월 개관한 경기사진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 사진전문기관이다. 경기도민이 사진을 매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으로 전시 중심의 미술관, 박물관들과 차별화했다. 개관과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누구나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를 열었고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안에 있는 교육 공간을 리모델링해 사용한 것도 이런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도민들의 가족 사진을 전시하는
'나의 가족, 우리들의 가족이야기' 프로그램





그림 (위)전시실 | 전경, (아래)교육실 전경

시설은 사(寫)와 진(眞)으로 명명된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의 전시실과 교육실, 스튜디오, 포토북라운지 등의 시설이 있는 사(寫) 관은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내부 통로로 연결된 진(眞) 관에는 두 개의 전시실과 사무실 그리고 수유실 등의 편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교육 시설로 운영됐던 두 건물은 시골 학교를 연상시키는 외관부터 좁은 복도, 낮은 석재 계단까지 곳곳에 정겨움이 묻어있다. 반면 전시실은 관람 편의를 고려한 개선이 적극 이뤄졌다. 공사를 통해 층고를 높였고 공간을 고려해 조명을 배치했다.

경기사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진 관련 교육이다. 사진 기술과 창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도민 참여 프로젝트,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리뷰 등이 예정돼 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다. 작가와 도민이 함께 지역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을 기록, 연구하는 작업은 지역사회 기반 문화플랫폼의 핵심 가치들 중 하나다.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 예술 활동이다. 센터와 함께 조성된 약 3,000평 규모의 정원 '사진뜰'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 관련 활동들이 예정돼 있다.

개관 특별전

《빛나는 얼굴들 : 아이콘에서 우리로》



경기사진센터 개관을 기념한 두 개의 특별전은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전시실 I부터 전시실 III까지 이어지는 《빛나는 얼굴들 : 아이콘에서 우리로》에서는 구본창, 조세현 등 예술과 대중매체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일곱 인물사진가들의 작품들을 보았다. 안성기, 김혜자, 강수연 등 유명배우부터 법정성님, 영화감독 박찬욱, 소설가 한강,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길 거리는 충분했다. 흥행 영화의 포스터에 사용된 사진, 잡지 표지 사진들도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이제 볼 수 없는 인물들의 얼굴을 보는 동안에는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다.



빛나는 얼굴들
아이콘에서
우리로

Shining Faces: Icon to Us



2026. 3. 28.
— 8. 9.

경기사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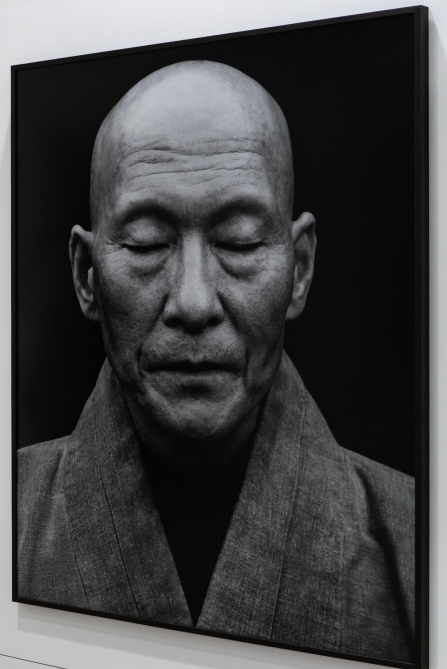
www.gpc.or.kr

경기사진센터 개관 특별전
고정애 구본창 김명숙 박정국 신선혜 오형근 조세현
Minjae Kim, Bokchang Gu, Myungsook Kim, Junguk Park, Sunhye Shin, Hyunggun Oh, Seohyeon Cho

경기사진센터

딕팁(diptych) 기법을 이용해 두 개의 사진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은 김용호 작가의 작품들은 인물 사진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다. 서로 다른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형태 너머에 있는 인간의 정신과 시간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그 배경에 한국적인 문화가 있다는 것이 경기사진센터의 설립 취지와 꼭 들어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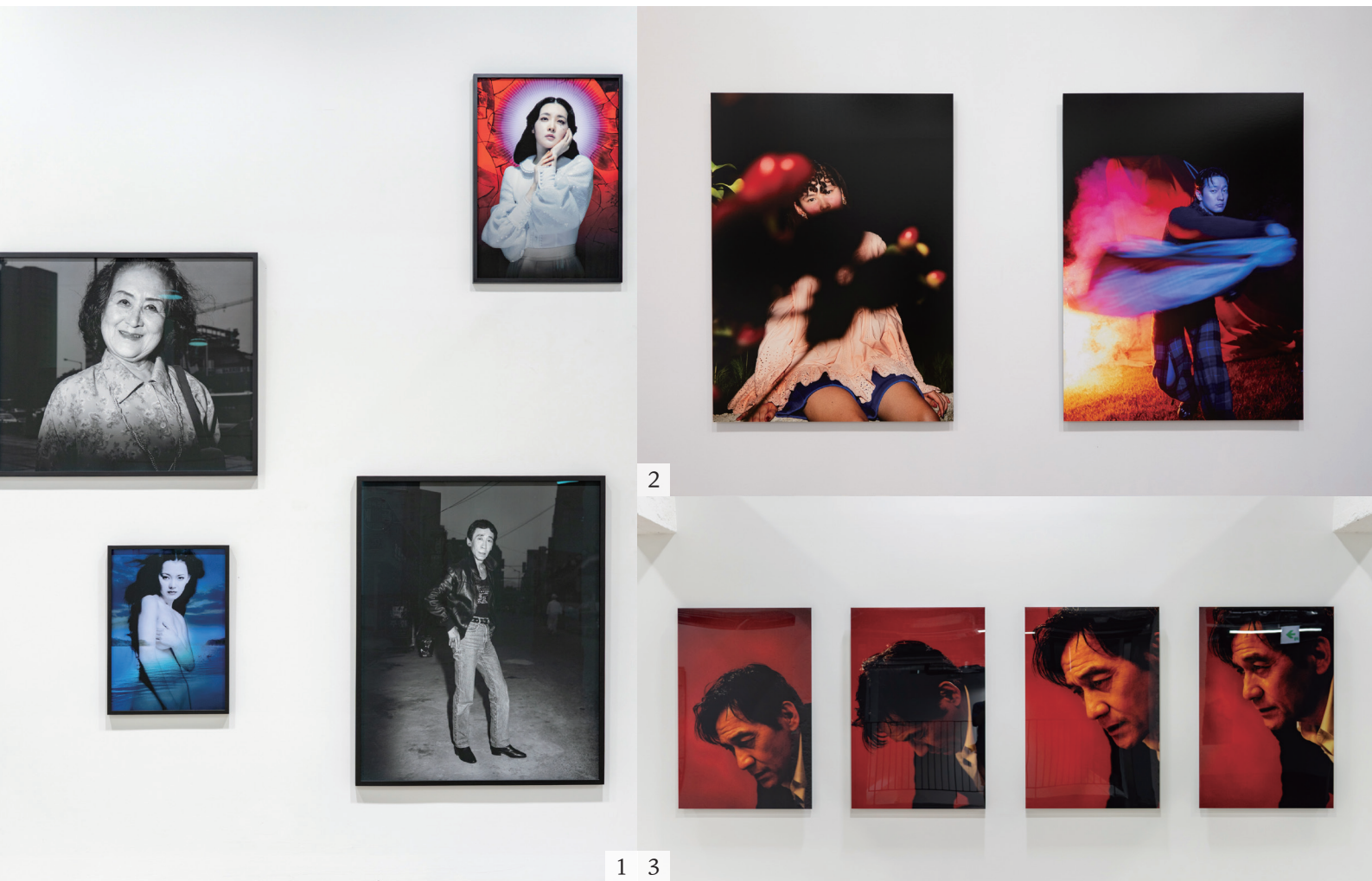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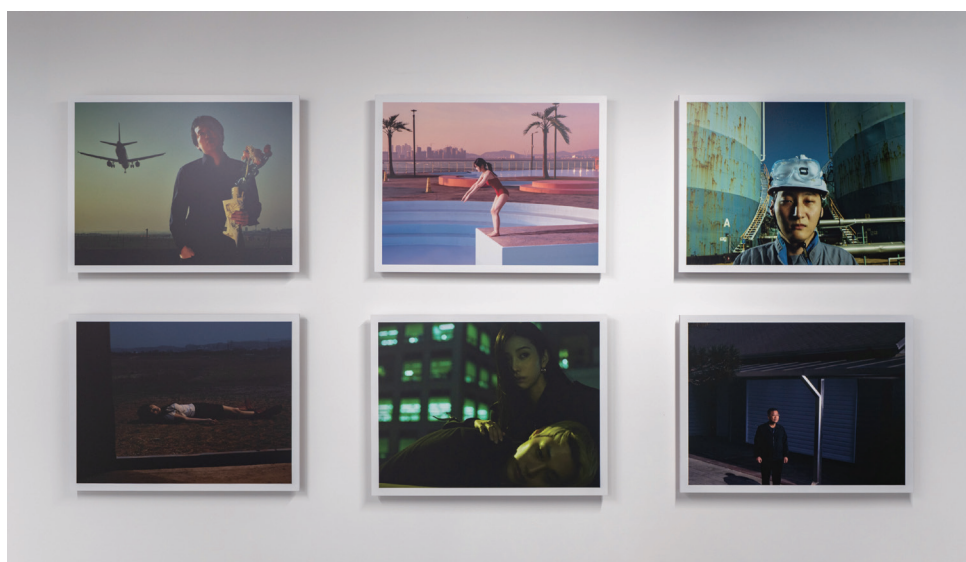


그림 1. 오형근, 트위스트 김과 신 카나리아 그리고 '금자'의 섬
2. [좌] 신선헤, 2024 GQ Korea (2024) [우] 신선헤, 2021 ELLE (2021)
3. 오형근, 화장 (2013)

2층에 있는 전시실 II, III을 거치며 전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프레임 속 얼굴들이 유명인사에서 평범한 사람들로 바뀐 것이다. 1층 포토북 라운지와 전시실 II에 걸린 작품들은 고원태 작가가 경기도 내 31개 시, 도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들을 촬영한 것이다. 이는 시대의 아이콘이 된 인물들도 보통 사람에서 시작됐다는 전시의 의미를 내포한다. 낯선 인물들의 등장 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존재의 기록이라는 사진의 본질에 더욱 긴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개관 특별전

《파밀리아 : 가족과 가족사진》



전시는 개관 특별상설전 《파밀리아 : 가족과 가족사진》으로 이어졌다. 가족사진을 주제로 한 이 전시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내세운 경기사진센터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김도영, 김옥선 등 여섯 작가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상을 사진에 담았다. 전통적인 아버지 중심의 대가족부터 국제결혼,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1인 가족의 모습까지 다분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모습들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32개 가구가 사는 모습을 기록한 정연두 작가의 작품들에서는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 모여 사회의 형태, 습성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 한 시대의 풍경이 된다. 김도영 작가는 잠든 가족을 보며 느꼈던 불안을 바탕으로 인물이 배제된 가족사진을 구성했다. 구겨진 이불과 힘 없이 떨어진 손으로 삶을 표현한 것이다. 최은주 작가는 무작위로 섭외한 인물들을 가족사진이라는 틀에 옥여넣었다. 설명을 보기 전까지는 영락없는 가족의 모습인 작품들을 보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 볼 수 있었다.



개관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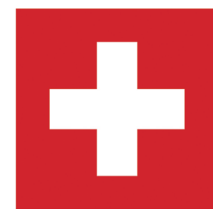
《100 Swiss Photobooks》



1층에 마련된 GCP 포토북 라운지에서는 사진집 전시 《100 Swiss Photobooks》가 열렸다. 보통의 미술관, 박물관에서 도록 소개 및 상품 판매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을 경험의 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전시된 서적은 최근 스위스에서 출간됐거나 스위스 사진가들의 작품이 실린 사진집 95권이다. 이를 통해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부터 현대 사진예술까지 스위스 사진 문화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모니터 화면 또는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넘기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디지털, AI 시대에 오히려 더 주목받는 물질적 매체의 가치다.



100 Swiss Photobooks



2026. 3. 28.
— 12. 6.

경기사진센터

GCP Photobook Lounge

www.gcp.or.kr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사진센터
후원 경기문화재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전면에 내세운 문화 사업이 부쩍 활성화되고 있다. 사진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도 반길 일이다. 일상의 기록에서 출발해 사진 예술을 경험하고 나아가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경기사진센터 같은 시설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말마다 가족 방문객들로 넓은 사진틀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 본다.

[경기사진센터]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 관람시간 : 화 ~ 일 : 10:00 ~ 18:00(매주 수요일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 관람료 : 무료
- 편의시설 및 서비스 : 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수유실, 정원
- 문의처 : 031)291-1826
- 홈페이지 : gcp.or.kr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